

# “군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장수군 만들 것”

### 최훈식 장수군수, 민선8기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 갖고 1년 동안의 변화·나아가야 할 방향 공유

최훈식 장수군수는 26일 장수군청 회의실에서 민선8기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1년 동안의 변화와 함께 앞으로 장수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군민들과 공유했다.

최 군수는 지난해 취임 당시 “공직자가 변해야 장수군에도 미래가 있다”며 “군민들을 위한 위민행정을 실현하며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 장수”를 건설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선8기 5대 국정방침 수립  
최 군수는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 장수’라는 원대한 비전과 함께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국정 △미래농업 중심 부자농촌 △행복한 일상의 희망복지 △공존하는 장수의 문화관광 △희망을 키우는 미래교육이라는 5대 국정 방침을 수립했다.

가장 먼저 장수군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미래농업을 위한 준비에 착수, 농산물가격안정자금 400억 조성하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온 행정력을 집중했다.

행정 내부 조직에도 혁신을 더했다. 군민 중심의 적극행정·혁신행정을 강조하며 공직자가 먼저 변화할 것을 당부했던 최 군수. 그 결과 장수군은 지난해 행정부 적극행정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1월에는 조직개편을 단행, 핵심과제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며 군민 중심으로 업무를 전환해 나가며 국정 전반에 변화와 혁신을 도입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26일 장수군청 회의실에서 민선8기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1년 동안의 변화와 함께 앞으로 장수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군민들과 공유했다.

◆미래농업을 통한 성장동력 기반 구축  
최훈식 군수는 가장 먼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자금 확대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이를 위해 8ha 규모의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목표로 총 683억원(기금 120억, 국비158, 도비156, 군비128)을 확보, 1단계는 2024년까지 두산1 일원에 4ha 규모의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2단계로는 올해 4ha 규모의 사업부지를 선정할 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일손 부족으로 농가들의 불안이 심화되고, 농민들의 삶까지 위협받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

마련에도 힘썼다.

지난해 총력과 심혈을 기울여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 올해 5월 부터 농가에 계절근로자를 배치해 일손 지원을 하고 있다.

더불어 결혼 이주민들의 가족과 친척으로 구성된 외국인 근로자와 JOB 센터를 통해 모집한 도시민 유휴인력도 농가에 배치해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들이 적기에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100만 문화관광 도시 장수  
최훈식 군수는 장수읍 누리파크, 의암호, 논개사당을 중심으로 동천리 고분군과 팽봉생 자작나무 숲까지 연계한 장수군 대표 관광지 조성에도 나섰으며, 현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청정자연에서 체력을 즐기고 힐링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아 갈 수 있도록 장수누리파크 농촌관광활성화 사업, 유아숲체험원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팽봉생 생태공원 내 1만2,000여 평 규모의 자작나무 숲 아래에 꽃다지을 신규로 조성, 팽봉생 생태공원과 연계해 ‘봄’의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이어 장수군의 오래된 장수기야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장수군의 침령신상은 국가사적 지정을 앞두고 있으며, 이에 더해 가야역사관 개관을 통해 장수기야의 오랜 역사를 많은 이들에게 홍보한다는 구상이다.

◆군민 활력 증가 위한 생활밀착형 SOC 확충에도 집중  
지난해 장수군은 민선8기 출범과 함께 농촌공간 정비사업, 저탄소에너지 공동안용시설사업 등 각종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2023년 국가예산으로 전년 대비 57억원(국도비 등)이 증가한 1,197억원(국도비 등)을 확보하는 등 행복 장수 건설 기반을 확고히 다졌다.

2025년까지 농어촌 상수도 물 복지 확대사업(총사업비 60억원, 23년 12억원)을 추진해 농촌지역 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수군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42억원)으로 도시가스 수준의 생활 편의를 제공해 장수군에서 취약한 에너지 분야를 개선한다.

또한 장수-장계 국도(19호선) 도로 시설개량공사(335억원, 2022~2025)를 통해 군민은 물론 장수군을 방문하는 도로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산서면 농촌공간 정비사업(154억원,

2022~2026) 추진으로 농촌의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유해시설 이전 및 정비 등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농촌다움을 복원할 계획이다.

◆소외와 차별 없는 희망복지·희망교육  
최훈식 장수군수는 교육 분야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아이들이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고 도시의 아이들과 차별 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예산을 거의 2배 가까이 확대했으며, 학교 교육 지원사업을 기존 12개 사업(7억원)에서 17개 사업(12억원)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5개 신규 교육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

또한 5월 장수군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의 교육을 위해 장수군 풀뿌리 교육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해 관내 각 교육기관에서 개별 운영되고 있는 교육지원사업을 통합·관리하며 예산누수 차단과 효율적인 교육 지원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대학생 주거비 지원 장학금이 신설돼 타지에서 생활하는 장수군 출신 대학생들에 대해 주거비 지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민선8기 공약사업인 ‘학생 연 20만원 바우처 지원’을 실현시켜 장수군에 주소를 둔 만3세~18세 청소년들에게 만기별로 10만원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지난 1년이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장수의 기반을 다지는데 한 해였지만 다가오는 시기에는 기존에 계획한 정책을 구체화시키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 해 성과를 가시화해야 할 때”라며 “군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하며 군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장수군을 만들어야겠다”고 강조했다. /장수=관훈기자

## 지역 소식통

### 장수군 안전보안관 교육·위촉 진행

장수군은 최근 장수군청 2층 전산교육장에서 장수군 안전보안관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장수군 안전보안관 교육 및 위촉을 진행했다.

안전보안관이란 행정안전부가 2018년 5월 생활 속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출범시킨 것으로 국민 스스로 주변의 위험 요소를 찾아 개선하고 안전 문화 운동을 확산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됐다.

장수군 안전보안관은 지역 여건을 잘 아는 활동성을 갖춘 군민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선발했으며, 일상생활에서 발견한 안전 위반 행위를 신고하고, 장수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캠페인 등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교육은 하태원 우석대학교 명예교수를 초청해 안전보안관의 역할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해 교육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우리가 사는 장수군에서 군민들이 안전하고 안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보안관으로서 열심히 활동해 달라”고 당부하며, “안전의식 생활화를 위한 주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관훈기자

### 장수형특례발전연구회 전북특별법 특강 가져

장수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장수형특례발전연구회’(회장 김광훈)는 지난 29일 삼일위원회실에서 전북특별법 시행에 따른 장수군 대응방안 이란 주제로 한경대학교 박종혁 교수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의는 내년 1월 18일 시행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앞두고 장수형특례발전연구회가 추진 중인 의원정책 연구용역과 관련 장수군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특색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하고자 마련한 자리였다.

특강 종료 후 장수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장수형특례발전연구회’ 김광훈 회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전북특별법 내용을 정밀 분석하고 특별법 시행에 따른 장수군의 위기와 기회를 알아보고 전략적 대응방안을 발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장수=관훈기자

### 진안군 드림스타트 1박2일 가족힐링캠프

진안군은 지난 24~25일까지 1박 2일에 걸쳐 드림스타트 참여 아동 및 가족 25여명을 대상으로 여주시 일원에서 가족힐링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평소 가족 여행 기회가 부족한 취약계층 가정에 가족 간의 소통 강화 및 유대감을 증진시키고자 마련됐다.

특히 가족 단위로 많이 가는 여행지인 여수 아쿠아리움, 야경크루즈, 천사별화미를 등으로 여행 일정이 채워져 큰 효능을 얻었다.

이날 참여한 드림스타트 부모는 “오랜만에 온가족이 맛있는 음식도 먹고 다양한 볼거리를 함께 즐기는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군 드림스타트팀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한 가족힐링캠프를 통해 참여 가족들이 긍정적 관계를 다지고 가족애가 깊어지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기자

## 국내 최초 태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협약

### 진안군, 필리핀 이어 2번째 체결

영농 노동력 부족 해소에 주력하고 있는 진안군이 국내에서 최초로 태국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군은 26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전춘성 진안군수를 비롯한 진안군 관계자와 태국 수컷 초크린 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태국 관계자 등 30여명이 함께 만나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특히 이번 협약식은 진안군청 인력지원팀과 태국 대사관 노무관실이 중재자 없이 1년 6개월여 걸친 수 많은 직접적인 소통과 사견협의 등 노력의 결과로 성사돼 더 큰 의미가 있다.

더욱이 이번 태국 계절근로자 도입 협약은 다른 경로로 태국인과 함께 영농을 경험해본 지역 주민들이 보인 태국 근로자에 대한 높은 신뢰도로 적극 추천한 주민들의 건의에서 비롯돼 주민 어려움 해소를 위한 소통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다.

협약식에서 전춘성 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서 상호신뢰가 확보되고, 농



진안군은 26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전춘성 진안군수를 비롯한 진안군 관계자와 태국 수컷 초크린 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태국 관계자 등 30여명이 함께 만나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왼쪽부터 전춘성 진안군수, 태국 수컷 초크린 노동부 장관, 태국 노동부 고용국 파이로 초티까씨태인 국장)

촌인력 부문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다면 문화·교육·인적교류 등도 확대해 갈 것이며, 성실 근로자에게는 재입국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태국의 수컷 초크린 노동부 장관은 “우수한 인력이 진안군으로 송출되고, 이탈 없이 지역주민과 동화되면

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통한 모집 선발, 송출 그리고 사후관리 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협약식 후 농가 사업주에 대한 2024년도 상반기 수요조사를 반영해 해당 국가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도입 및 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기자



###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여름철 관광객 맞이 나서

진안군 대표 관광지인 운일암반일암이 28일부터 여름 피서객 맞이에 나선다.

군은 6월 28일~8월 20일까지 총 56일을 운일암반일암 집중 관리기간으로 삼고, 관광지 편의시설 정비 및 시설물 안전점검 등 여름철 관광객 맞이 위한 준비를 마쳤다.

특히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주차관리 10명, 환경관리 14명 등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하고, 계곡 곳곳에 물놀이 안전요원 12명을 배치를 완료했다.

운일암반일암(雲日峯半日峯)은 구름만이 오고 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반나절뿐이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약 9천만 년 전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계곡으로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의 대표 지질명소이다. 신비한 자연경관과 함께 물놀이 및 구름다리와 오르막 관광 기업회사를 활용한 볼거리 등 여름철 관광객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진안군은 운일암반일암 지질탐방로(노적교~무지개다리 구간)를 1.8km 추가 확장해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전망이다. 또한 2024년까지 안전하고 깨끗한 물테마공원 조성하고 카비안 캠핑장을 조성하여 운일암반일암을 힐링 관광지로 명소화시킬 계획이다. /진안=우태만기자

## 무주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활기

### 복분자 수확기 맞아 7월 7일까지 100톤 물량 수매 예정

무주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가 공동수집 및 출하를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 임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임산물 산지유통센터는 임산물의 6차 산업화를 주도해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2022년에 조성, 올해 2월부터 무주군 농업협동조합 친환경유통사업단이 수탁자로 선정돼 운영 중이다.

1,636㎡규모에 공동선별장과 입출고장, 저온저장고 16동 등의 시설을 갖춘 임산물 산지유통센터는 6월 복분자를 시작으로 천마와 오미자, 머루 등

다양한 임산물을 생산시기에 맞춰 수매할 예정이다.

복분자 수확기를 맞아 지난 19일부터 수매를 시작한 무주군은 7월 7일까지 100톤 물량을 수매할 예정으로 황인홍 군수는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수매 현황을 직접 찾아임가에서 납품한 복분자 물량과 품질을 점검하고 저장창고 입고 등 복분자 수매 과정을 살폈다.

또 복분자 생산 임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복분자 재배와 수확, 판로 개척 등에 관한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임산물은 대한



무주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가 공동 수집 및 출하를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 임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민국 대표 산림 군인 무주군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가 임산물 공동 수집·공동 출하를 실현해 임업인 여러분의 소득을 높이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 또한 제대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지유통센터가 동부권 임산물 물류터미널로서의 역할 또한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기능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며 “임산물 생산조직을 강화하고, 생산자 교육과 컨설팅 등 지속적인 관리를 주도해 고품질 임산물 생산과 유통을 실현, 소득증대는 물론 소비자 만족도 역시 높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기자